

CREATION TRU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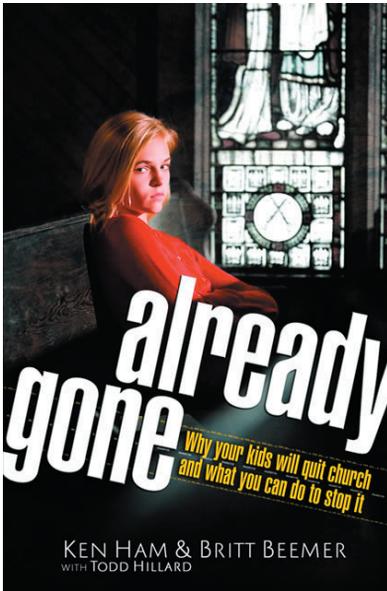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NEWSLETTER

Volume 17 Number 10 • 10 2009

3010 WILSHIRE BLVD. PMB 578, LOS ANGELES, CA 90010 / TEL 213 381 1390 WWW.HISARK.COM / HISARK@GMAIL.COM

이미 떠나버렸다(2)

주일학교 개혁의 필요성



주일학교 교육의 개혁의 필요성과 방법을 통계자료를 근거로 AIG의 켄 햄이 쓴 책이 최근 나왔다. 속킹하지만 해결책을 제시한다. 음식점이나 상점으로 둔갑한 영국 교회들의 사진을 보면 착잡하고 우울한 감을 금할 길 없다. 지난날의 찬란하던 구라파의 기독교 문명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는 의아심을 금치 못한다. 동일한 일이 일어날 징조가 이곳 아메리카대륙에도 있는 것일까? 최근 22,000명의 성인과 2,000명의 틴을 상대로 한 조지바나의 설문 조사의 결과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다. 19%는 한번도 교회를 나가보지 못했다. 61%는 20대가 되면서 교회와 멀어지게 되었다. 여전히 영적인 삶을 유지한다는 사람이 겨우 20%다. 20대가 되면서 교회를 멀리한 61%나 되는 이렇게 많은 젊은 이들을 상대로 더 깊이 조사한 특별 통계자료가 없을까? 정확

히 언제, 무슨 이유로 교회로 오던 발길을 다른 곳으로 돌렸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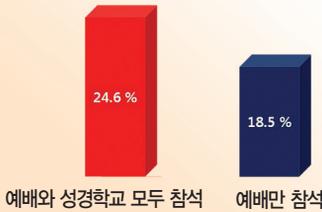
모든 사람들이 다 거듭나고 하나님과 긴밀히 교통하는 세상을 상상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 전에는 비 성경적인 바람이지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악몽과 같은 일이다. 바쁜 삶에서는 누구나 자기의 삶에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우선을 두고 주어진 시간에 할 수 있는 만큼 최대의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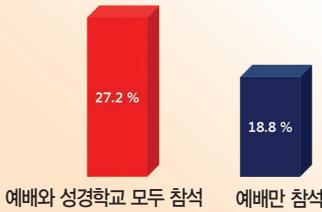
교회 출석과 성경에 대한 의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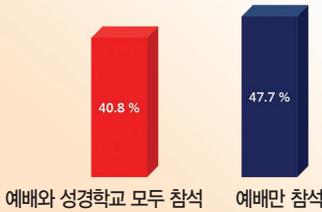
떠난 20대 : 하나님이 진화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떠난 20대 : 하나님이 진화로 동물을 창조하셨다



떠난 20대 : 혼전 성관계는 옳지 않다



이다. 여기서 흔히 쓰는 적절성 아니면 연관성 (Relevance)이란 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성경과 교회는 나의 삶과 얼마만한 연관성을 갖고 있을까?

이것은 중요한 질문이다.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아메리카 리서치 그룹의 브릿 비머가 복음주의 가정에서 자라면서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은 교회를 떠난 20대의 1,000명을 상대로한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놀랍다. 거의 90%가 중고등시절에 교회를 떠났다는 사실이다. 그러면 그 때에 교회를 떠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인즉 40%가 중시절, 44%가 고등시절, 11%가 대학시절에 성경을 믿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성경을 믿을 수 없게 되었다면 그때 당시의 각자의 삶과 성경간에 연관성이 결여 되어 있다는 것이다. 결국 주일 학교가 이들의 성경적 세계관 형성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주일 학교 신드롬이란 말이 나오게 되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없이 자기나름대로의 세계관으로 사는데 이들의 성경적 세계관을 알면 좀 이해가 쉽다. 여섯 가지의 카테고리 가운데 주일학교를 다녔던 그룹이 주일학교를 다니지 않았던 그룹보다 틀린 쪽에 5-10%나 높은 비율로 나온 것이 놀랍다. 이들은 분명히 주일학교 교육을 통해 성경과 교회가 나의 실제의 삶과 큰 관계성이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일까?

우리의 자녀들은 세속 학교로부터 인본, 세속주의적 세계관으로 세뇌되고 있다. 영적,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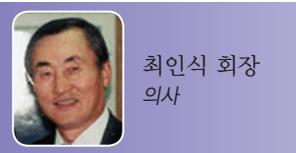
덕적인 면만 교회에서 가르치고 나머지는 전부 세속학교에 의지하면 성경과 교회가 실제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른다. 그런데 세속의 가르침으로 세계관의 많은 부분이 형성되면 결국 영적 및 도덕적인 면도 마침내 변한다. 삶의 모든 부분에 성경과 교회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성경적 기독교세계관 정립이 급선무다.

교회를 떠난자의 62%는 성경의 내용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성경의 내용을 믿는다는 38%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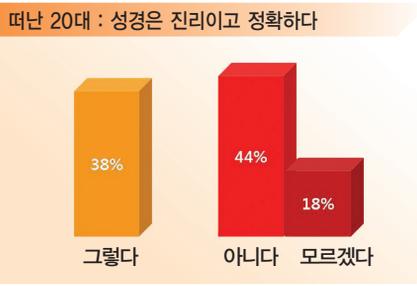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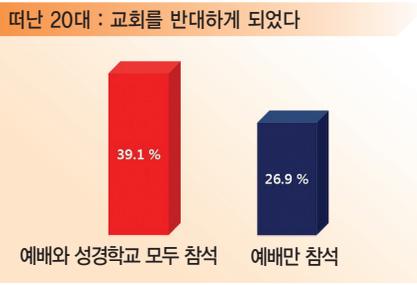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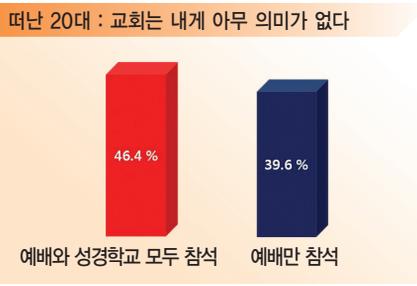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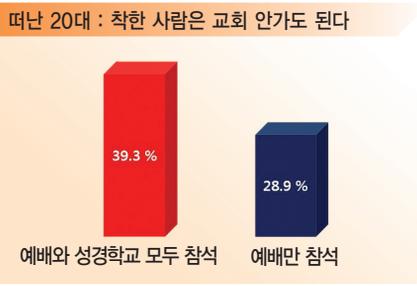
왜 교회를 떠나는가? 교회와 성경이 사회와 연결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 성경적 기독교 세계관정립이 열쇠다. 지질학, 생물학, 천문학, 인류학 및 역사학이 성경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세속학교가 담당하면 당연히 성경과 교회는 세상 삶과는 전혀 관련성이 없는 것처럼 인식되고 만다.

서서히 일어나는 믿음의 붕괴는 어디서 올까? 개인의 세계관 형성에 핵심이 되는 창세기가 믿을 수 없게 되면 성경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게 마련이다. 근원에 대한 이슈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이 지구의 나이이다. 오늘날 미국인 중 성경대로 지구의 나이가 만년이하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20%뿐이다.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면 세속문화가 우리의 의식구조를 지배하게 됨은 당연하다. 지구의 나이가 수 십 억년이라는 막연한 생각은 무신론적인 유물사관의 첫째 조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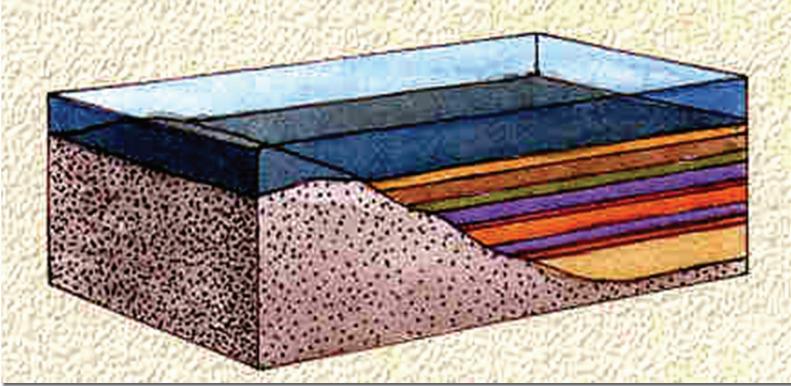
문제와 이유를 파악 했으면 해결책을 찾아 적용해야한다. 해답은 우리 손에 있으나 교회의 지도자, 청소년 지도자, 교사 및 부모들이 이 사실의 중요성을 절감해야 한다.



햄 & 비이머의 《이미 떠나버렸다》의 책에 대한 더 상세한 내용이 다음 뉴스레터에 이어집니다.



데이터 수집 보수적이고 복음적인 교회(자유주의 신앙을 가진 교회 출석자는 제외) 했음에 다녔으나 지금은 다니지 않는 미국 전 지역의 20대 1000 명(나이, 홈스쿨, 공립학교, 성별 등이 표준화 됨)에게 78 개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분석 함



노아홍수 전기

휨다는 것 지층이 휨다는 것 지층이 휨

퇴적암으로 이루어진 산들의 대부분은 휘어진 지층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들을 지질학 용어로 습곡(folding)이라고 부른다. 히말라야나 안데스 산맥을 포함한 많은 산들에서 이들 습곡은 그다지 어렵지 않게 관찰된다. 엄청난 두께의 지층들이 평행하게 휘어진 것이다. 지질학자들에게 이런 습곡이 형성되는 과정은 참으로 궁금한 부분이었다.

먼저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은 지층이 휘는 어떤 과정도 오늘날에는 관찰된 경우가 없다는 점이다.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는 휘고 있지만 속도가 아주 느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미 굳어버린 암석들은 어떤 물리적인 시도에도 부서져 버리지 휘어지지 않는다. 습곡이 형성되는 것은 시간과의 관계라기 보다 횡압력(수평으로 주어진 압력)을 받았을 당시에 그 지층이 얼마나 부드러웠는지에 달려있다. 즉 그 지층이 아직 굳기 이전 상태에서만 형성이 가능하다.

스티브 오스틴과 존 모리스는 이에 대한 퇴적암의 습곡 형성에 대한 공학적 실험을 시도해보았다.¹ 그 실험 결과는 압력을 가하는 시간이 느림과 빠름에 상관없었으며, 이미 굳어버린 암석은 결코 휘지 않으며 부서져 버리는 것이었다. 즉 지구상에 관찰되는 습곡들은 그 암석이 굳기 전, 그러니까 물 속에서 퇴적작용이 끝난 지 얼마 안되었을 때 받은 압력에 의해서만 형성이 가능한 것이다. 더군다나 그 두꺼운 모든 지층들이 서로 평행하게 휘 수 있는 것은 아래 지층부터 맨 위까지 전 지층이 동일하게 굳기 전에 가능하다. 즉 이들 전 지층이 형성된 시기가 거의 비슷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 번 언급되었듯이 퇴적 지층이나 그 속에 간혀있는 화석과 석탄 등은 빠른 속도의 물과 흙의 이동에 의해서 형성된다. 그 지층의 연속성,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어떤 지층은 북미 전역에 걸쳐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흙의 양뿐 아니라 이를 운반시켰던 물의 규모가 대단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지층형성 과정이야말로 노아홍수와 같은 모든 깊음의 샘들이 터지고 전 지



노아홍수 후기

구가 물로 덮였던 격변을 고려하지 않고는 상상하기 어렵다.

또한 대규모적으로 지층이 휘는 이런 습곡작용도 노아홍수와 같은 조건 하에서만 쉽게 설명될 수 있다. 즉 노아홍수 후기 물이 빠지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전지구적인 퇴적작용을 마친 후, 전지구적으로 산이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가는 그리고 물이 육지에서 물러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지질학자들은 언젠가부터 대륙이 상대적으로 이동해왔다는 것에 동의한다. 이를 대륙이동설 또는 판구조론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들 대륙(지판)들이 서로 부딪히는 부분은 높아져서 산맥을 이루고, 상대적으로 멀어지는 부분은 넓어지고 낮아져서 바다가 되었다고 믿는다. 그러나 대륙이 이동하는 과정에 대한 동의와는 달리 이들이 이동하는 속도와 시기에 대하여는 아직도 의문이 가득하다. 대륙이동설이 처음 대두되었을 당시인 1960년대만 해도 지질과정의 속도와 강도가 오늘날과 동일하다는 동일과정설의 패러다임이 우세했기 때문에 대륙이 이동하는 속도도 아주 느렸을 것으로 여겨왔다. 그러나 증거가 누적될수록 언젠가 대륙이 아주 빠른 속도로 움직였다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

산을 구성하고 있는 휘어진 지층들 역시 동일과정설로는 도저히 설득력을 갖기 어려운 모습이다. 이미 기존 지층들이 암석으로 단단하게 굳어버렸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노아홍수 후기에 대륙이 이동하면서 서로 상대적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그려보면 쉽게 이해된다. 서로 부딪히는 곳은 지층이 휘어지며 솟아올라 높아지고 벌어지는 곳은 낮아지고 넓어져서 바다를 이루었을 것인데, 이 모든 과정이 일어나는 시기는 지층이 형성된 직후이기 때문에 모든 지층이 굳기 전의 상태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쉽게 휘어지고 지금 우리가 보는 습곡을 보여주는 산맥을 만들었을 것이다. 실제로 히말라야나 안데스 산맥들은 아래뿐 아니라 정상에서도 지층 속에 수많은 조개나 물고기와 같은 해양화석들을 간직하고 있는데, 이는 노아홍수 전기에 물속에서 퇴적된 것임을 확인케 한다. 지구의 수많은 곳에서 관찰되는 휘어진 지층은 전지구적으로 일어난 격변, 노아홍수 전후기의 모델로만 이해될 수 있는 것들이다.



이재만 부회장
지질학, 과학교육학

1. Steven, A. A., and Morris, J. D., "Tight Folds and Clastic Dikes as Evidence for Rapid Deposition of Two Very Thick Stratigraphic Sequence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reationism, p.3-15, 1986.

ACT News

창조과학학교

ANC 온누리교회 종강

지난 6월 7일부터 시작 한 제 14기 창조과학학교가 8월 9일 “성경을 믿은 과학자들” 이란 10 번째 주제를 끝으로 성황리에 마치게 되었습니다. ANC 온누리교회는 매 년 두 세 차례의 창조과학 탐사여행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각급 주일학교들에도 창조과학학교같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여 2세대들이 성경에 굳게

서도록 도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주의 시대에서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특별히 자녀들에게 분명한 물질관은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드리는 데 필수입니다.

대흥장로교회와 시카고 창조과학학교

지난 2006년 제 11기 창조과학학교를 마친 대흥 장로교회(담임목사: 권영국)는 3년 만에 다시 14기 창조과학학교(9/9 ~ 11/11)를 시작합니다.

시카고 지역의 제 9기 창조과학학교는 9월 14일부터 삼버그침례교회(담임목사: 김광섭)에서 열립니다. 연락처는 630-400-6114/847-845-5368;



tyi@sbcglobal.net입니다.

창조과학학교를 통하여 성경적인 세계관을 배우고 감격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탐사여행

ANC 온누리교회 싱글공동체

지난 7월 31일- 8월 2일 ANC 온누리교회 싱
글 공동체에서 탐



규화목 공원 박물관에서 공룡화석과 함께 (생수의강선교교회)



Olmsted Point에서 빙하지형의 흔적에 대하여
듣는 참가자들 (ANC 싱글맘 공동체)

사여행에 참가했습니다. 싱글공동체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참가인데 작년 그랜드캐년에 이어 올해는 요세미티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하는 빙하시대로 참석했습니다. 참가자의 대부분이 자녀와 함께 참석했는데 자녀들을 위해 온누리교회의 Mike 형제님께서 열정적인 통역으로 수고해주셨습니다.

생수의 강 선교교회

지난 8월 6-8일 생수의 강 선교교회에서 탐사여행에 참가했습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참가한 것입니다. 2세들을 위한 통역도 이루어졌으며 한국어로 진행될 때는 자녀들에게는 AiG의 New Answers Book을 읽도록 하였는데, 돌아오는 차에서

의 이들의 변화된 간증은 2세들에게 창조과학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나게 했습니다. “초등학교까지 신앙이 확실해서 목사가 되고 싶었지만,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진화론이 자신의 신앙을 모두 잃게 했다. 이번 탐사여행과 책을 통해 확실히 성경으로 돌아왔다.” “The New Answers Book 은 정말로 내가 바라던 책이다” 등의 간증이 나왔습니다. 생수의 강 선교교회는 새가족 환영회에서 창조과학선교회의 “창조주 하나님” 세미나를 계속해서 초청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빛 선교교회

지난 8월 13-15일 사랑의 빛 선교교회에서 탐사여행에 참가했습니다. 사랑의 빛 선교교회는 4년 전 교회의 후원 선교사를 만으로 구성된 팀들이 참가했으며, 교인들만으로는 첫 탐사여행이었습니다. 창세기의 이해에 있어서 탐사여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일본에서 창조과학 세미나

이재만 선교사는 지난 8월 19-24일 일본의 동경을 방문했습니다. 20일에는 일본인들에게 6시간 30분간 창조과학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일본에서 창조과학을 통해서 복음 Creation의 초청으로 이루어졌으며, 오는 11월 6일 오사카 Love Creation에도 다시 초청되어 그 열기를 이어갑니다. 이번 기회로 창조과학선교회가 일본 복음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그 일환으로 내년 일본 본토에 있는 분들로 구성된 팀들이 탐사여행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9월 28-30일에는 미국에 거주하는 일본인들로 구성된 팀들이 빙하시대 탐사여행을 떠납니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재만 선교사의 “일본 선교의 도구로서 창조과학” 에서 접할 수 있습니다.



(창조과학 콘서트) 일본어 판을 설명하고 있는 우사미 미노르 일본창조과학회 회장

창조과학 콘서트 일본어판 출판

지난 8월 일본인을 위한 창조과학 세미나에 때맞추어 이재만 선교사의 “창조과학 콘서트” 일본어 판이 출판되었습니다. 이번 일본어 판은 창조과학회 회장인 우사미 미노르 박사가 감수를 해주었으며, 일본 창조과학회 초대 회장인 우사미 마사미와 CRJ(Creation Research in Japan)회장인 다카하시 박사가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동경에서 Ken Ham과 우사미 미노르와 미팅

Answers in Genesis 회장인 Ken Ham은 Creation Research in Japan의 초청으로 이재만 선교사

에 이어서 이틀간 세미나로 창조과학의 분위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세미나를 마친 다음날 23일 오전에는 이재만선교사는 Ken Ham과 미팅을 가졌습니다. Ken Ham과의 미팅에서 AiG와 창조과학선교회가 긴밀하게 관계를 가지면서 사역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일본선교에도 함께 협력하기로 했으며, 내년부터 진행되는 일본 탐사여행부터는 AiG의 창조박물관을 함께 패키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일본 창조과학 회장인 우사미 미노르와도 미팅을 가지며 두 기관이 일본 창조과학 사역에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논의했습니다. 우사미 박사는 내년 탐사여행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미주 두란노 “저자 세미나 시리즈” 에서 이재만 선교사 강의

오는 10월 26-27일 저녁 7:00-9:30 미주 두란노에서는 저자 초청세미나 강사로 “노아홍수 콘서트” 저자인 이재만 선교사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엽니다. 이 세미나에서는 지난 4월 출간된 “노아홍수 콘서트”의 내용인 “노아홍수 전후기 지질학적 증거”, “패러다임과 지구나이”를 다룰 예정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LA 두란노 213-382-8029, 또는 www.usaduranno.com에서 접할 수 있습니다.

북미 전역에서 부는 창조과학 세미나

“지난 세미나(8월 10-11일)를 통해 저희 학생들이 새롭게 깨달은 점들을 적은 소감문을 보내 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강의를 해 주셨음에 감사 드립니다. ... 함께 못한 학생들이 많이 아쉬워합니다. 언제든지 다시 한 번 기회를 만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Santa Maria 믿음장로교회(담임목사: 정성호) Youth 그룹 디렉터이신 박세성 사모님의 노트였습니다. 전체 소감문은 저희 홈페이지의 『ACT 간증』에 실어 놓겠습니다. 8월 21일에 있었던 은혜한인교회(담임목사: 한기홍) 청년부(담당목사: 이형규) 수양회에서도 노아홍수의 증거들과 창조주 하나님의 세미나를 통하여 창조과학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9월과 10월은 창조과학선교회 세미나가 북미 전역에서 열립니다. 남가주와 시카고 지역에서 개강하는 창조과학학교를 비롯하여 시라큐즈 기쁨의 강 교회(9/11-13, NY), 유타 교역자협의회와 유타대학교(10/16-18), 오레곤 에덴장로교회(9/18-20, OR), 본한인교회(9/25-27, Canada), 열방교회(9/25-27, MO), 뉴욕 맨하탄 선교교회(10/2-4, NY), 맥알렌 한인교회(10/9-11, TX), 토론토 성산교회(10/23-25, Canada), 미주 두란노(10/26-27, CA), 인랜드 순복음교회(10/31, CA)에서 열립니다. 가까운 곳에서 계신 분들은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행하신 일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7차 유학생 탐사여행

2010년 1월 4-6일 7차 유학생 창조과학 탐사여행을 출발합니다. 순복음 라스베가스 교회(담임목사 강일진)의 후원으로 이루어지며 참가비는 \$70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창조과학선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 photograph showing two men on a stage. The man on the left is younger, wearing a dark suit and a white shirt with a tie, and is smiling while holding a microphone. The man on the right is older, wearing glasses, a dark suit, and a light blue shirt, and is also speaking into a microphone. The background is a green wall with large, stylized white letters that appear to be 'CGN' and 'SONATA'.

일본 선교의 도구로서 창조과학

지난 8월 20일, 일본의 Love Creation 초청으로 일본인들을 위한 창조과학 세미나를 인도하고 돌아왔습니다. Love Creation은 일본 전도집회인 Love Sonata의 연장선에서 나온 창조과학 사역입니다. Love Sonata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온누리교회가 주축이 되어 한국과 일본이 기독교 부흥을 함께 하고자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일본 전도집회입니다. 11회를 거치며 지금까지 45,000명 이상의 인원이 참석하여 일본선교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저에게 일본인들은 그렇게 낯선 대상이 아닙니다. LA 근교의 일본교회에서 세미나뿐 아니라, 지난 3년간 매년 한차례씩 일본인을 위한 창조과학 탐사여행을 인도했었고, 일본 기독교인들이 주위에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일본 본토에서 세미나를 인도한다는 점이 사뭇 긴장을 느끼게 했습니다. 어쩌면 이 세미나가 일본인들과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지 모른다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세미나는 230명이 등록하는 기록적인 숫자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숫자는 기독교 인구가 1%가 채 안 되는 일본에서 단일 세미나로서는 모이기 쉽지 않은 인원입니다. 주최측에서 150명 정도를 예상했는데, 훨씬 많은 인원이 등록한 것입니다. 의자가 부족해서 많은 참석자들은 서서 들어야 했습니다. 이런 대성황은 Love Sonata와 CGN-TV에 대한 일본인들의 신뢰와 Love Creation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홍보 결과였습니다.

일본은 진화론이 국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나라입니다. 교육열이 높지만 하나님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어렸을 때부터 오직 진화론만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왔습니다. 세미나에 앞서 참석자들에게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에 대한 정확한 지적이었습니다. “Love Sonata와 여러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일본에서 복음이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이유가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바로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았던 진화론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

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깨어지지 않는 한 동일한 결과만을 낳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제까지 일본의 잠재능력을 보며 수많은 선교사가 투입되어 여러 방법으로 시도했지만 동일한 결과만을 낳았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만 시작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진화론이 마음속에 자리잡은 이들에게 십자가에서 출발은 이해되기도 어려울뿐더러 잠시 기독교에 매력을 느꼈다고 할지라도 결코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 앞에 있던 진짜 역사인 창세기가 그들 마음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세미나에서 이들이 놀라는 반응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불확실했던 부분이 확실해졌기 때문입니다. 가장 자신 없던 부분에서 자신감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창조과학으로 접근해야 하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논리적 접근에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진화론이란 물질 세계만으로 기원의 논리를 세우려는 자세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방법을 역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질세계를 다루는 과학적 접근과 함께 피조물에 새겨진 성경의 증거들을 통해서입니다. 논리적으로 진화가 왜 잘못되었고, 논리적으로 노아홍수가 왜 받아들여져야 하고, 논리적으로 수십억 년 지구나이가 왜 불가능한지..... 이번 세미나에서 바로 그 논리적인 면을 건드렸던 것입니다. 참석자들은 성경의 시작은 창세기이며, 이것이 곧 우리의 시작인 것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미나는 “기원에 관한 근본적 질문”, “노아홍수의 지질학적 증거”, “패러다임과 지구의 나이” 등의 주제로 6시간 이상 이어졌는데, 강의가 진행될 때마다 열기가 더해갔습니다. 세미나 후에 질문 받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일본인들의 성격상 공개질문을 꺼릴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진지한 질문들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반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반응은 곧바로 다음 계획을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오는 11월 6일 오사카의 Love Creation과, 같은 달 28일 동경에서 있는 한일 청년부 연합 수련회에서도 집회를 인도합니다. 내년 9월 18일부터 일본에서 미국으로 창조과학 탐사여행을 참여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일본에 도착했을 때, 재일교포로부터 일본인들의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매년 약 30,000명이 자살하며 그 중에 가장 높은 이유가 경제적인 문제며, 올해는 이미 연평균 자살숫자를 넘었다고 합니다. 최고의 경제 대국이면서도 경제문제 때문에 자살하는 숫자가 가장 많은 물질 최우선의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인들의 상대방에 대한 남다른 점도 들었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특유의 자세 때문에 자신도 결코 도움을 받지 않으려는 극단적 자세를 취한다고 합니다. 즉 마음이 닫혀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독특한 국민성에 대하여도 들었습니다.

일본인들을 만나며 다음 성경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요 3:12). 이들이 진화론으로 인한 땅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창조과학을 통해 풀리고, 더 나아가 그 창조자를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로 다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한편으로 부서진 가족과 이웃들의 벽도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창조과학 선교회 뿐 아니라 일본에서 이를 위해 준비하는 CGN-TV와 Love Creation 담당자들을 위한 기도도 많이 필요합니다. -이재만



세계관 전쟁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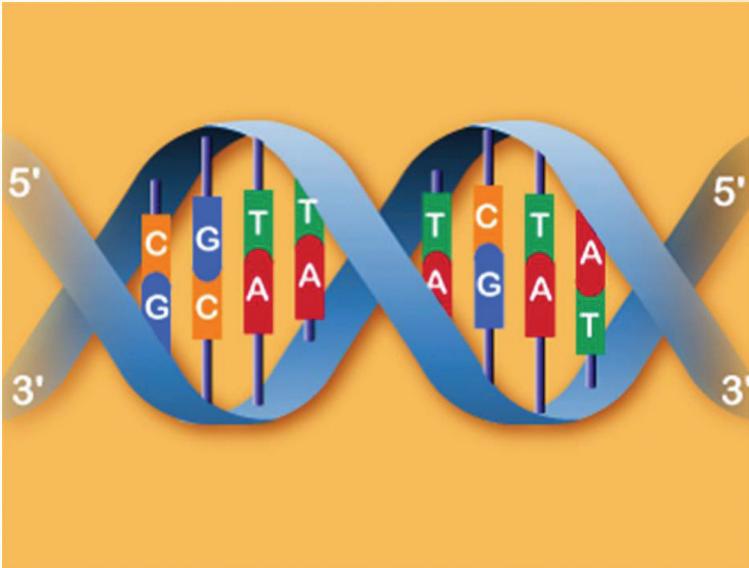
돌연변이가 진화의 동력인가?(1)

진화론은 돌연변이가 마치 연못-찌꺼기(생명체를 구성하는 아미노산 등의 성분들이 혼합되어 있는 상상의 바다에 들어 있는 각 성분들)를 사람으로 진화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수단이나 되는 것처럼, 그리고 마치 창조에 관한 성경의 역사가 틀린 “증거”나 되는 것처럼 큰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 ... 돌연변이를 좀 더 자세하게 관찰해 봄으로써 과연 돌연변이가 연못-찌꺼기를 사람으로 진화시킨다는 생각을 지지해주는 정보를 제공하는지 아니면 창세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 주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예를 들어 누군가가 모스 코드로 도움을 요청하려면 그들은 SOS(도움을 받기 위한 국제 위급 신호)란 글자들을 전송할 것이다. 모스 코드로 SOS는: S는[···]세 개의 짧은소리; O는[- -]세 개의 긴소리; S는[···]세 개의 짧은소리. 그러므로 그것은[··· - - - ···]즉 세 개의 짧은소리 다음에 세 개의 긴소리 다시 세 개의 짧은소리가 될 것이다.

돌연변이는 모스 코드의 점을 선으로 바꾸는 것과 같다. 모스 코드로 SOS를 쓰려고 하는데 첫 번째 점을 선으로 바꾸면 다음과 같은 사고가 일어난다: [-·· - - - ···] 이 선 점 점은 S가 아니라 D가 되므로 이제 다음과 같이 읽히게 된다: D[-··]; O[- - -]; S[···]. 그 실수(돌연변이)때문에 SOS 대신 DOS로 읽히게 된다. 만약 당신이 이것을 전송했다면 누구도 당신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이 돌연변이는 당신의 신호에 다음 두 가지 일을 했기 때문에 심각한 것이었다. 1. 원래 단어를 잃어버리게 했다. 2. 의도/뜻을 잃어버리게 했다.

DNA 가닥은 모스 코드와 비슷하기는 하지만 훨씬 더 복잡하다. 단어나 어구들을 만들기 위해 선과 점을 사용하는 대신 DNA는 네 글자(G,A,T,C)를 사용한다. 모스 코드와 마찬가지로 돌연변이는 DNA 가닥에 영향을 미쳐 생명체에 문제가 생기게 한다. 이런 DNA의 오류들을 유전적 돌연변이라고 한다.



유전적인 돌연변이는 다음 두 가지 중 한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다. 1. 정보 손실. 2. 새로운 정보 획득. 그러나 실제로 관찰된 모든 돌연변이들은 정보 손실의 범주에 들어간다. 정보 손실은 기능의 증가나 감소와는 별개 문제다. 어떤 돌연변이는 한 생명체에 유전 정보를 잃어버리게 하지만 어떤 기능을 획득할 수도 있다.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이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종종 우리는 이런 형태의 돌연변이를 유익한 돌연변이라 부른다. 예를 들면, 바람이 많은 섬에 살고 있는 어떤 딱정벌레가 날개를 만드는 정보를 잃어버린다면 이 딱정벌레는 바다에 날려 가 물에 빠져 죽을 염려가 없기 때문에 이 돌연변이는 유익하다. 유전적으로 그 돌연변이는 그 딱정벌레의 정보를 감소시켰지만 유익하였다. 그러므로 이것은 유익한 돌연변이다.

정보 손실을 유발하는 돌연변이 외에 새로운 정보를 획득하게 하는 돌연변이들도 있다. 단지 몇 가지 그런 돌연변이의 경우가 있는데 논쟁의 여지가 있다. 기능에 대한 어떤 정보가 들어 있지 않은 염기쌍들로 구성된 DNA 가닥에 돌연변이가 생긴다 해도 아무 유익이 없을 것이다. 생명체에게 유익한 돌연변이가 되려면 새로운 정보를 얻게 하는 돌연변이가 새로운 기능도 획득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저자: Bodie Hodge

출처 : War of the Worldviews (2005), Answers in Genesis

● 이 책의 다른 부분은 www.HisArk.com의 “세계관 전쟁” 아이콘을 클릭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1. 과학 법칙에 근거한 정보의 정의에 대해서는 Gitt, W.의 *In the Beginning was Information*, CLV, Bielefeld, Germany, 1977을 보라.

탐사여행 간증문

생수의 강 선교교회(8/6 ~ 8/8, 2009)

지금까지 배워왔던 지구과학을 모두 부정당했으나 기분만은 상쾌했다. 지금까지 내가 노아방주 이야기를 믿지 않았다는 것이 스스로에게 부끄러웠다. - 신태성

지금껏 알고 있었던 지구 나이 45억년, 나의 존재는 수억 년 중의 단 몇 십 년 나의 존재감의 하찮음이 인생을 허무하게 느끼게 하였는데, 이번 탐사여행을 통해 나의 인생은 역사의 1%를 차지하는 귀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내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좀 더 귀하게 느끼며, 가치 있게 살아야 함을 다시금 느낀다. - 박지훈

창세기 1장을 믿음으로 믿었는데 이젠 자랑스럽고, 실제적으로 믿게 되어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 박효경

“왔노라, 보았노라, 깨달았노라!” 노아홍수의 사진 현장을 - 김지은

제가 132회 창조과학 탐사여행을 와서 가장 큰 은혜 받았던 부분은 “Young earth” 였다. - 남지현 전도사, 사우스 캐롤라이나

웅장한 자연 앞에서 너무 작은 존재감에서 바뀌어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에 내 존재 자체가 너무 굉장함을 느끼고... -윤복심

조각 조각으로 들어 왔던 창조과학의 접근(지질학적 접근)이 전체적 그림으로 그려지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과학적 접근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던 저의 세계관에 다시 한 번 패러다임 전환이 생기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노광조 목사

... 이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다시 보게 되니 참으로 감사하다. 이제는 말씀을 맡겨주신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창조과학을 알리는 자가 되어야겠다. - 이명숙

사람의 믿음을 바꾸는 일만큼 힘든 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믿음을 갈구했지만 동시에 항상 그에 대한 의심을 품고 있었던 저에게는 정말 의미가 큰 경험이었다... -여길모

와우! 오랜만에 머리가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가 지나면서부터 머리에 쥐가 나기 시작했지만 기를 쓰고 들었던 것은 탐사여행 시작 때 물어보셨던, 내가 사실을 믿고 있다는 감격 때문이었습니다. 명쾌한 풀이, 너무나도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소중한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 김영민, 한동대 3학년

지치지 않는 열정의 소유자! 이제만 선교사님! 그 열정으로 온 열방을 감역시켜주세요. - CGN TV, 장진아 기자

사랑의 빛 선교교회(8/13 ~ 8/15, 2009)

신앙과 신학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 머리를 식히는 일반적인 여행으로 기대했는데 옛날 배웠던 지식을 되새기느라 복잡스런 생각도 있었지만 곧 대어를 낚았다는 생각이 컸다. ...우리의 상상과 지식의 한계에 신의 위대함을 느낀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한섭

위대하신 하나님을 뒤로 하고 학교 교과서가 틀릴 일이 없다고 생각하며 믿음이 무너져 갔는데 이번 탐사여행을 통해 회개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저는 너무 기쁩니다. - 최현진

그러나! 저는 머리로만 말씀을 이해했고 특히나 창세기 말씀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이 탐사 여행을 통해 항상 머리로만 이해했던 말씀들이 가슴 깊은 곳까지 와 닿게 되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 이은지

이번 탐사여행을 통해 까칠하고 네모진 저를 둥글게 다듬어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편하게 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은미

세상의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사이에서 세상의 것을 버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지식의 결과가 과연 이렇게까지 밖에 오질 않는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피부로 깨달아 알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과감하게 세상의 생각을 버리며 살아가렵니다. - 김요셉

사실이 성경 안에 있었는데 세상에서 혼자 힘으로만 해결하려는 어리석은 자신을 발견했다. 앞으로 성경을 더욱 가까이 하며 올바른 기준으로 삼아야겠다. - 김자인

... 진화론과 친해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증거가 많고 설득력이 있는 주장을 좋아합니다. 학교에서는 진화론자 교수님이 매우 설득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 -곽철수

창조과학 탐사여행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부터 전 참 설레고 기다려졌습니다. ... 얼마 전 있었던 천문대 여행과 확연히 구별되는 이야기는 제 안에 임하신 주님에 대한 감사함과..... - 채은영

성경을 읽으면서도 진화론의 패러다임에 갇혀 갈등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 창조과학 탐사여행을 통해 더욱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진 기회가 되었습니다. - 유은미

이 세상은 진실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구나!!! 이 시간 이후로 창세기를 읽을 때 너무나 강렬한 느낌을 받을 것이다. - 박유선

●지면 관계상 신지 못한 전체 간증은 홈 페이지 『ACT 간증』 란을 보시기 바랍니다.

2009년 ACT Schedule

- 10/2-4 뉴욕 맨하탄 선교교회 (세미나, 이재만, 718-321-7800), NY
- 10/5 동양선교교회 평생학습원 (세미나, 이재만, 213-381-1390), L.A, CA
- 10/7 창조과학학교 대흥장로교회 (최우성, 310-719-2244) Gardena, CA
- 10/9-11 맥알렌 한인교회 (세미나, 이재만, 956-342-2808), TX
- 10/14 창조과학학교 대흥장로교회 (이재만, 310-719-2244) Gardena, CA
- 10/16-18 유타 교역자 협의회 (세미나, 이재만, 801-550-3826), UT
- 10/17 샌디에고 창조과학박물관 (최우성, 창조과학학교 310-719-2244) Gardena, CA
- 10/18 주님의 영광교회 새가족(최우성), LA, CA
- 10/21 창조과학학교 대흥장로교회 (이재만, 310-719-2244) Gardena, CA
- 10/23-25 토론토 성산교회 (세미나, 이재만, 416-785-4620), Canada
- 10/26-27 미주 두란노 (세미나, 이재만, 213-381-1390), L.A, CA
- 10/28 창조과학학교 대흥장로교회 (최우성, 310-719-2244) Gardena, CA
- 10/31 인랜드 순복음교회 (새생명 축제, 이재만, 213-381-1390), Inland, CA
- 11/4 창조과학학교 대흥장로교회 (최우성, 310-719-2244) Gardena, CA
- 11/6-8 오사카 Love Creation 집회(이재만), Osaka, 일본
- 11/8 생수의 강 선교교회 새신자반 (이재만, 562-653-0168), Cerritos, CA
- 11/8 주님의 영광교회 새가족(최우성), LA, CA
- 11/11 창조과학학교 대흥장로교회 (최우성, 310-719-2244) Gardena, CA
- 11/11-12 본교회 (이재만), 본국
- 11/13-15 종교교회 (이재만), 본국
- 11/18 한동대학교 (이재만), 본국
- 11/20-22 분당 샘물교회 (이재만), 본국
- 11/22 주님의 영광교회 새가족(최우성), LA, CA
- 11/23 High Family, 사랑의 교회 (이재만), 본국
- 11/26-28 창조과학 탐사여행(동양선교교회 평생학습원, 213-381-1390)
- 11/26-29 한일 대학부 수련회 (이재만) 동경, 일본
- 12/5 대전 온누리교회 (이재만), 본국
- 12/6 부산신흥교회 (이재만), 본국

● 다른 일정은 웹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원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CT



창조과학선교회 |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한국창조과학회 미주지부)

Mailing address | 3010 Wilshire Blvd. PMB 578, Los Angeles, CA 90010
Office Address | 152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15
Tel. 213 381 1390 www.HisArk.com / hisark@gmail.com